

'세계 최고' 농업으로 가는 길



농업정책연구소장
이 언 목

최근 삼성전자의 작년도 매출액이 43조 5800억 원이고, 순이익이 5조 9600억 원이라는 보도다. 삼성전자도 1969년 6월 회사를 설립할 때는 반도체에 관한 한 거의 '무'에서 출발했을 텐데 겨우 35년만에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잠재역량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은 이렇게 될 수 없는가?

우리 농업은 지금 개방으로 위기에 처해있다. 최악의 경우, 붕괴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사로 잡혀 있다. 한·칠레 FTA협정, 쌀 재협상, DDA협상, 한·일, 한·중FTA협정 등등 그야말로 개방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건비가 우리의 1/10밖에 안 되는 중국은 관민일체가 되어 농산물수출에 집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농업부문에 119조원을 투융자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발표하는 정부도, 들고있는 농민도 위기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위기타령만 하고 있으면 세상이 달라지는가? 아니면 한번 불어보기라도 해야할 것 아닌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 농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장에는 상당히 맞는 말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 농업도 규모화 될 수밖에 없고, 땅값은 경영비와 관계없는 항목이다. 개방으로 농산물가격이 떨어지면 농가의 소득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 농업이 경쟁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덴마크나 네덜란드가 농산물 수출국이 될 수 있

었던 이유는 단순히 영농규모가 커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선별·포장·가공 등의 부가가치를 최대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덴마크나 네덜란드는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 농업이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농업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계최고의 농업이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은 뛰니뛰니해도 농업기술이 세계 최고라야 할 것이다. 세계최고의 농업기술이라야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둘째, 세계최고의 농업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경영이 잘못되면 소득을 높일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품질관리 및 판매·유통을 잡아야 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출하조정을 잘 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엄밀한 품질관리로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도 우리는 다 아는 사항이다. 그런데 왜 우리 농업은 이런 수준에서 헤매고 있는가?

우리 농업의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연구·개발하는 시스템, 우리 농산물을 판매·유통시키는 산지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따로 노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술개발은 국가연구기관과 대학의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들은 자기의 '제한된' 전공분야에서 열심히 연구만 하면 되었지 반드시 가장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인' 기술까지 개발할 책임은 없었던 것이다. 판매·유통 문제도 마찬가지다. 농민들이야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파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조합은 신용사업만 잘 하면 되었던 것이다.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연구·개발하는 전문가그룹, 판매·유통을 담당하는 전문가그룹은 현장과 현장의 주인인 농민과 밀착되어야 한다. 농민 개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농업을 세계최고로 만들기 어렵다.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친 다음, 전문가그룹과 일체를 이루어 세계 최고 농업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세계적인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연구·개발하고, 농민들은 이를 신속하게 함께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별 농민과 전문가가 가진 "대단치 않은, 그러나 독특한" 기술과 경영노하우도 공개하고, 거기에는 다른 전문가들이 새로운 요소를 결합하여 우리만의 세계적인 기술과 경영노하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다. 기술과 경영노하우의 문제는 각개 약진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발전할 수 있다. 농업은 제조업과 달리 경영규모가 작는데다 각 농가별로 생산여건도 다르고, 기술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이 구구 각색이다. 그러나 구매자인 소비자의 대형유통업체는 "균일한 상품을, 대량으로" 원한다. 구매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마도 이들 업체들은 국내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할 수 없으면 수입을 해서라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려 할지도 모른다.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량수송을 위해서도, 소비자의 신뢰와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활동을 위해서도, 과잉생산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기 위해서도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모든 농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런 희생과 기여 없이 공짜로 협력의 효과에 편승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체 협력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우리 농업·농촌의 주역인 한농연회원은 "앞으로 10년, 늦어도 20년 내에 우리 농업을 세계최고의 농업으로 만들겠다"는 꿈★과 야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품목별 주산지의 핵심 농민들이 세

계 최고의 농민이 되겠다는 뜻을 모아야 한다. 왜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하는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그야말로 허심탄회한 토론하면서 뜻을 모아야 한다.(참조: '세계 최고농업' 야망 가지자!, 2004.1.12일자 한국농어민신문 게재) 지역의 기술센터 및 경제사업을 잘하는 조합과 우선 협의한 다음, 해당 품목관련 업계 전문가, 연구소 및 대학의 참여를 요청하여 "세계최고 00농업실현 00지역사업단"을 결성하고, 활동계획을 서로 협의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 및 경영기법에 관한 연구 및 학습·토론, 개별농장에 대한 경영진단, 국내외 견학, 시장요구에 맞는 '상품'생산 등 강력한 연구, 학습, 그리고 협동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농업"을 만드는데 모든 단원이 한마음으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 당연히 각 지역사업단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단의 자조적·자립적인 활동을 "낭비적이다 할 정도"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시스템이 아니면 세계최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품목별 사업단의 요구에 따라 융통성 있게 예산과 제도적인 지원을 하되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고,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관련 정책의 개발,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비지원, 정책사업대상자 선정 등 현장과 관련 있는 사항은 반드시 지역품목사업단 또는 연합사업단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단이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되고, 탁상행정이라는 비난과 비효율을 피할 수 있다. 혹시 잘못된 경우에도 농민과 책임을 나누어 질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참여농정이다.

한농연회원은 우리 농업·농촌의 주역으로서 농업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농업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제일 답답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농업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에게 농업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되, 우리도 주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 개방의 파고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점점 거세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최고 농업"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농정원년"의 정책기조를 현장의 농민위주로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 **한농연**